코로나 감염재생산지수 확 줄었다

최근 일주일 0.55 기록… 7월 3.29의 1/6 수준
6일 오후 5시 기준 4명 확진… 2개월 만에 최소

제주지역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9월 들어 조금씩 꺾이면서 감염 핵심 지표들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도내에서 4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고 이날 밝혔다.

밤 사이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만약 확진자 수가 7일 0시까지 4명을 유지할 경우 지난 7월 3일(2명) 이후 2개 월여 만에 가장 적은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하게 된다. 또 나흘 연속 한 자릿수 확진을 유지한다.

감염 확산세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도 안정화 단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감염 재생산지수는 전국 평균(0.98)보다 낮은 0.55까지 떨어져 유행 억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주변 몇 명을 더 감염시키는지 나타낸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이하면 유행 억제를 뜻한다. 제주지역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 7월 3.29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8월에는 다소 떨어졌지만 그달 중순까지 1.8 수준을 보였다.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발생률도 제주는 호남권과 함께 1명 수준으로 전국 최저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이유에 대해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후 확산세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입도객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경각심을 잃지 않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등 모두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4명은 모두 제주지역 감염자의 접촉자로 조사됐다. 이중 3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돼 추가 전파 우려는 낮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했다. 또 제주도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111명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2661명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2교차로 좌측과 우측에 들어선 육군 제1훈련소 정문 2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전망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공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

故 이영식씨 설계 작품
건축재료 제주 특성 반영
한국전쟁 역사 품은 유산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한국전쟁의 역사성과 장소적 상징성을 지닌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고 6일 밝혔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한국전쟁 당시, 신병을 양성해 서울 재탈환 등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주도 대정읍 지역에 창설됐다.

육군 제1훈련소 정문 2기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 2교차로 좌측과 우측에 들어서 있으며 가로 2.5m, 세로 2.5m 넓이에 높이는 3.7m이며, 두 기둥 간 간격은 17m 정도다.

정문 설계자는 평양철도전문학교 토목과를 졸업한 고 이영식(1931년생)씨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21세의 나이로 입대한 후 훈련소 정문 설계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은 기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를 비롯해 제주 구 해병 훈련시설, 강병대교회, 육군 98병원 병동과 함께 한국전쟁의 역사를 품은 귀중한 유산이다.

특히, 정문 축주에 사용된 제주 현무암과 조개껍질 등의 건축 재료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형태와 양식에 있어서도 시대성을 보여주는 국방 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은 앞으로 30일간 의견 수렴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기존에 등록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와 연계해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강만관 도세계유산본부장은 "대정읍 지역은 한국 근현대사의 산 교육장이자, 살아있는 한국전쟁 박물관"이라며 "해당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들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등교확대 여부 관심

교육청 이번주 계획 발표

최근 주춤하고 있는 도내 코로나19 확산세에 학교 현장도 일단 안정세를 찾고 있다. 다만, 학생 확진자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전환 학교가 발생하는 등 '불안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교육당국이 이번 주 중 오는 13일부터 적용될 학사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등교수업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치료중인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14명이며, 도내 3개교(유·초 2, 중 1)가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으로 전환 운영됐다.

누적 학생확진자 340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8월(180명)에 발생했는데, 9월들어 신규 확진자는 총 8명으로 2주전(8월 23~29일, 20명)보다 감소했다. 다만 매일 1~3명(1~3일 각 1명, 4일 3명, 5일 2명)이 발생하고 있고, 등교중지 학생수도 2주전 1일 2000~3000명대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9월 들어 평균 700명대로 집계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책회의를 통해 9월 12일까지 시행되는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한 도교육청은 이번주 중 회의를 통해 새로운 학사운영방안 논의에 나선다.

당초 도교육청은 2학기를 맞아 단계별 전면 등교수업을 추진했지만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한시적 학교밀집도 강화 조치를 이어왔다.

오은지기자

6일 새벽 1시, 제주한라대학교 인근 편의점엔 찾는 손님은 없고 조명만 환하게 켜져 있다. 강민성기자

"불은 켜 놨지만… 손님이 없네요"

심야시간 매출 급감에 편의점 업주들 한숨
"인건비 줄이기 위해 알바 없이 혼자 가게 봐"

"심야 시간에 문을 닫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A씨는 매출 전표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매출이 생각한 것보다 더 낮았기 때문이다.

그는 심야시간 운영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심야시간대 발생하는 매출이 투입되는 운영비의 3분의 1이 채 안되고 있어서다.

일부 편의점의 경우 바깥에 설치해 둔 야외테이블이 여름 매출의 상당 부분을 기여했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야외테이블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게 돼 손님이 급감한 상태다.

업주 A씨는 "하루 매출이 8~90만원 이상 나와야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데, 요즘 이를 채우기가 어려워졌다"며 "밤엔 손님이 없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주들은 차선책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고민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와의 계약 당시 영업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단축 운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야 시간대에 운영하면 전기료, 수수료율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지만 운영 시간을 줄이면 혜택이 줄어들게 돼 업주들은 고민에 빠졌다.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B씨는 "문을 열어도 남는게 없다. 계약상 불이익이 있지만, 감수하고 영업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주들 사이에선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주 C씨는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주말에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평일엔 가족들이 돌아가며 가게를 보고 있다.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이라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만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꿔 업주들이 숨 쉴수 있게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편의점은 19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4시간 운영은 점주들의 선택"이라며 "매출 하락이 지속되면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벌초 후 음복… 위험합니다"

경찰, 4~5일 26명 적발
"이번 주말·휴일도 단속

제주에서 벌초가 집중된 지난 주말 2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음주운전 단속을 펼쳐 총 26명(면허취소 16명·면허정지 10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26명의 운전자 중 벌초가 이뤄진 낮 시간대에 적발된 경우는 총 11명(면허취소 3명·면허정지 8명)이었다.

아울러 이 기간 제주경찰은 벌초 행렬로 인한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상습정체구간인 해안육교~무수천사가로교차로, 노형교차로(애조로), 곽지해수욕장 인근 일주도로 등 12개소에 순찰차와 싸이카 등을 배치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말인 11일과 12일에도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벌초 과정에서 음복을 한 후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핵심물질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au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밭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21세기 농업은 미생물 농법으로
가이아 바이오 토양 미생물제재
부스트 팜 ⇒ 탄생
사용방법 ○ 20ℓ(1말)을 100배(100말)희석 1,000평 관주 ○수돗물을 사용시는 하루 지나서 희석
사용효과 ○ 질병 예방(세균성, 곰팡이성) ○ 토양 이끼 제거 ○당도 · 과중 증가, 저장성 증대 ○ 기형과 감소로 인한 수확량 증대 ○토양을 기름지고 숨쉬는 옥토로 바꿈
사용시기 ○ 거름(퇴비)을 시비한 후 관주 ○ 영양 생장 · 비대기때 관주 ○ 엽면시비는 200배로 희석 사용
본 제품을 시제품으로 사용할 농가께서는 연락을 주십시오
010-2633-5349 부 영 인
곰탱이 감귤 유통상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